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24 | Summer
vol. 54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www.caupharma.com



Contents

중앙약대 동문회보 2024년 여름호

시론

- 3 가을의 국화를 생각함
39회 졸업 30주년을 기다리며
김명철(39회)

동문회장 인사말

- 5 우리 함께 더 큰 미래로 나아갑시다
정상수(24회)

동문회소식

- 6 화보
- 8 202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위수여식
시련을 받아들이며 가치 있고 행복한 삶 추구
- 11 폭넓은 네트워크의 우리 약학대학 입학에 축하
약학대학 2024학년도 입학식 개최
- 13 총회 및 약대 개교 70주년 행사 성료
동문 체육대회 및 골프대회 준비에 만전
약학대학 동문회 2024년도 초도이사회
- 15 산업계의 중앙대 약대 동문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다
 제약산업동문모임
김준하(62회)
- 17 체육대회, 소통과 단합을 통한 삶의 작은 위안
제52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및 동문 만남의 날 행사
방근철(39회)

동기회소식

- 21 지나온 이야기 들으며
서로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기쁨
28회 동기회 졸업 40주년을 맞아
이해룡(28회)
- 23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 더 설레는 우리 모습
38회 동기회 졸업 30주년 행사를
마치고...
이강국(38회)

약국도움이야기

- 25 전 세계 비만약 열풍의 중심,
위고비
편집위원회

특별기고

- 30 기다리 선배님이 전해주시는 4년간 전액 장학금
익명의 선배님께 받은 사랑 후배에게 물려주겠습니다
강민규(66회)
- 32 약학도의 길을 걷는 중앙인, 파람
조수호(68회)

문학산책

- 35 한눈팔지 말어
중앙대 약대 8회 졸업 60주년을 생각하며
백만섭(8회)

학교소식

- 36 · 명예의 전당 도너스월(Donors Wall),
최첨단 설비의 리주란 강의실 제막
· 진정주 동문 스터디카페 현판식
· 약대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배운 심폐소생술,
생명을 구하다
- 재학생 송기철, 고영우 학생에게 고마움 전해
· 박종혁 팀플룸, 현판식으로 새출발

39 약학대학 발전기금 현황

- 40 회비내역
- 42 장학기금
- 43 만평
- 44 편집후기



가을의 국화를 생각함 - 39회 졸업 30주년을 기다리며

내년이면 저희 39회가 졸업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입학이라는 설렘이 엇그제 같았는데 졸업하고 약국이라는 공간에 살면서 유리창 바깥의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였습니다. 이렇게 동문회보에 글을 올리는 이야기 또한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합니다.

20대 때의 젊음을 불태웠던 시기에서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봄에 피는 목련을 보노라면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던 나의 마음에서 힘겹게 떠받치는 나뭇가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향해 피는 해바라기를 보면서 느꼈던 거침없는 열정은 이제는 너무나 커버린 탓에 줄기가 부러져 떨어져 나가는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제 졸업 30주년을 바라보는 지금 가을 국화의 화려함을 바라보던 마음에서 하나하나의 꽃잎이 모여 국화 본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무언가를 위해 힘겹게 달리며 그 꽃의 주인공이 되고자 했던 마음들이 강했지요. 이제야 비로소 느끼게 된 것은 목련을 떠받치는 나뭇가지를 보며 얼마나 그 꽃을 떠받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부모님의 삶을 느끼게 되고 선생님, 교수님,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느끼게 됩니다.



김 명 철(39회)



열정만으로 버텼던 지난날의 세월을 이제는 언젠가 시들어 부러지는 해바라기를 바라보며 반추해 봅니다. 어쩌면 삶의 과한 열정과 욕망이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때로는 안식을 때로는 겸손을 때로는 기다림을 느껴봅니다. 세상살이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어요.

하지만 '살면 살아진다' 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 세

상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꽃들이 모여야만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는 국화의 아름다움은 내게 그런 희망을 안겨줍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비록 주름살과 흰머리가 생겼을지라도 서로가 다정히 바라보는 눈빛은 변하지 않았기에 그래서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과의 만남도 그러하며 후배들과의 만남도 그러할 것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가을날에 필 국화를 생각하며 더군다나 중앙대 약대라는 하나의 꽃잎을 가슴에 새기며 국화를 느껴봅니다.

우리 함께 더 큰 미래로 나아갑시다



정 상 수(24회)
동문회장

동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는 특히 유난히도 맹위를 떨치는 폭염 앞에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이 더위가 생각나는 계절이 오는 게 세월의 진리이고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위대한 힘이라 생각합니다.

여름 휴가에 알래스카 빙하를 보고 왔습니다. 온난화로 사라져가는 빙하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만, 또 한편은 인간의 힘으로 이 변화가 파괴만이 아닌 문명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도 해 봅니다.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만, 특히 우리 중대 약대 동문회보가 어려움 속에서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임을 모두가 인정하시겠지요. 빙하로 가는 길에 필연적으로 많은 빙산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 동문회의 역사 역시 눈으로 보이는 얼음 덩어리가 아닌 그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동문들의 참여와 희생으로 가능하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요즘 ‘과연 동문이란 무엇인가? 우리 중대 약대 동문회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약계가 바라보는 위상을 지키고 있는가?’ 등등의 명제를 두고 동문회장이라는 자리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번 약대 개교 70주년 행사에 즈음한 약대 발전기금 조성 과정을 위시하여 끊임없이 이어지는 동문들의 기부와 참여와 희생을 보면서 우리 동문회에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연유로 더욱 겸손함을 견지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동시에 우리 동문회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강해짐을 느낍니다.

동문 여러분!

‘어제는 역사, 내일은 미스터리, 오늘은 선물’이라는 명언이 엄숙한 자리가 아닌 일상에서도 널리 인용되고 있지요. 왜냐하면 이 말인즉슨 오늘(present) 그 자체가 중요한 선물이고 여기에 가장 충실하자는 뜻일진대 저는 바로 이 동문회보가 지나간 어제를 오늘로 상기시켜주는 귀한 선물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언제까지고 계속 이어질 우리의 약속임을 기억합니다. 함께 합시다.

삶이란 일, 가족, 건강, 친구, 나 자신의 다섯 개의 저글링이라고 합니다. 이중 동문회는 가족이자 친구이기에도 서로 위로하며 하나된 마음으로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우리 함께 더 큰 미래로 나아갑시다.

살아보면 모든 게 선물이라는 원로 학자의 말씀을 잔잔히 되새겨 봅니다. 지난 2년 동안 동문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무엇보다 다가오는 환절기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월 22일_ 2024년 약학대학 학위수여식

3월 6일_ 약학대학 홍보대사 '파람' 간담회

4월 27일_ 2024회계년도 초도이사회

5월 8일_ 진정주 스터디카페 현판식



01



02

03

04





01

02

03

04



5월 8일_ 2024년도 1학기 장학금수여식

6월 2일_ 동문회 체육대회

6월 29일_ 고문단회의

7월 14일_ 여동문회 야유회



202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위수여식

시련을 받아들이며 가치 있고 행복한 삶 추구



약학전공 61명, 제약학전공 61명 총 122명의 약학사 배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2024학년도 학위수여식이 2024년 2월 22일 102관(약학대학 R&D센터) 3층 대강당에서 영예의 졸업생들과 그 가족들의 축하 속에 의미 있게 개최되었다. 이날 약학대학 3층은 여정을 마무리하는 졸업생들과 이를 축하하기 위한 학부모와 가족들, 교수진 및 내빈들로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68회로 약학전공 61명, 제약학전공 61명 등 총 122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되었다.

약학대학 학부장 나동희 교수의 개식 선언으로 진행된 학위수여식은 ▲국민의례 ▲연혁 보고 ▲내빈 소개 및 식사 ▲내빈 축사 ▲학위 수여 ▲교내외 시상 ▲교가 제창 ▲폐식 선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학교 졸업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본교 교수들을 비롯해 정상수 동문회장(파마리서치 대표), 김채영 여동문회장, 김신규 파마리서치 대표이사, 김정일 삼진제약 전무이사, 정원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부사장, 우종오 하이텍팜 전무이사, 조동현 건일제약 R&D 본부장을 위시하여 권영희 서울특별시 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 약사회장, 이명자 동작구 약사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황광우 약학대학 학장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항상 성원해 주시고, 아낌없이 도와주신 부모님들을 비롯한 가족분들, 교직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70년 전통인 최고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어엿한 동문이 됐다”고 인사를 전한 후 “인생은 늘 시련과 함께하고, 이 시련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삶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부족함을 메꾸며 강해져 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두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축복한다”며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했다.



정상수 약학대학 동문회장은 “약학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사회 방면에 도전하면 좋겠다”며 새로운 출발을 앞둔 후배들에게 덕담을 건넨 다음 “오늘의 인연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폭넓게 소통하며 새로움을 개척해 나가기를 부탁드린다. 특히 후배들의 미래를 더 응원한다”며 후배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냈다.

이어서 이번 졸업식의 하이라이트인 학위수여식이 진행되었다. 황광우 학장은 참석한 모든 졸업생들에게 일일이 학위증을 수여하고 학사모의 태슬(술)을 넘겨줌으로써 학사로서 재탄생하게 되었음을 알렸다.

행사에 참석한 모든 교수들이 단상에 도열하여 참석한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과 가벼운 손인사를 통해 축하의 말을 전함으로써 이번 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김예은 졸업생이 약학전공(61명) 대표로, 장정호 졸업생이 제약학 전공(61명) 대표로 학위를 수여받았다.

학술상 시상에서는 백승희 대학 수석 졸업생과 김현아 학부 수석 졸업생을 포함해 최우등 졸업자 12인이 수상했다. 또한 최희정 졸업생이 우등 졸업자(22명) 대표로, 차유빈 졸업생이 우수 졸업자(23명)를 대표로 수상했다.

봉사 공로상 시상에서는 2022학년도 약학대학 학생회장을 역임한 조영석 졸업생, 부학생회장을 역임한 안병희 졸업생이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교가 제창 및 단체 사진 촬영 후 폐식 선언으로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로써 오랜 시간 고락을 함께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생들의 여정이 마침표를 찍었다.



2024년 2월 제68회 졸업생 명단

약학전공

강○현 강○준 곽○준 권○승 권○진 기○재 김○휘 김○중
 김○현 김○원 김○은 김○중 김○은 김○희 김○지 나○민
 남○진 류○원 맹○진 민○윤 박○준 박○영 박○연 박○희
 박○진 배○규 백○정 변○지 성○현 손○수 송○린 신○섭
 안○은 양○연 여○주 유○애 윤○빈 이○건 이○현 이○진
 이○인 이○현 이○린 이○재 이○빈 이○혜 이○서 이○은
 이○중 장○민 정○진 정○교 정○원 정○지 조○영 조○인
 주○연 최○휘 최○범 최○나 추○은

【이상 : 약학 전공 61명】

제약학전공

강○규 고○현 권○연 권○주 권○재 김○하 김○나 김○희
 김○희 김○영 김○환 김○향 김○아 나○선 남○현 노○중
 류○연 모○준 박○연 박○영 박○송 박○훈 박○아 박○용
 백○희 변○섭 부○해 손○미 송○나 송○원 신○림 신○민
 안○희 안○연 양○아 여○환 오○환 윤○영 윤○원 이○윤
 이○규 이○민 이○훈 이○슬 이○림 이○제 이○화 장○영
 장○호 전○지 정○영 정○건 정○은 정○운 조○석 차○빈
 최○안 최○정 최○훈 최○정 황○현

【이상 : 제약학 전공 61명】

수상자 명단

교내수상자

구분	성명
최우등(대학수석)	백○희
최우등(학부수석)	김○아
최우등	여○주 이○슬 박○훈 백○정 권○진 이○림 기○재 이○윤 김○휘 박○아
우등	최○정
우수	차○빈
봉사 공로상	조○석
봉사 공로상	안○희

교외수상자

기관명	성명	기관명	성명
대한약사회	백○희	한국유나티디제약(주)	김○원 김○휘 박○아 최○정 신○민
서울특별시약사회	김○아	(주)하이텍팜	김○중 전○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여○주	(주)안국약품	곽○준
경기도약사회	이○슬	(주)일동제약	정○영
동작구약사회	박○훈	(주)건일제약	김○현
본동문화회	백○정	(주)노바렉스	고○현
여동문화회	권○진	(주)큐엘파마	오○환
파마리서치	이○림	(주)지엘팜텍	김○중
(주)삼진제약	기○재	(주)온누리에이치엔씨	이○민

교내 학술상 우등 수상자

고○현, 곽○준, 김○나, 김○현, 김○원, 김○은, 김○중, 김○향, 김○지, 박○연, 신○민, 오○환, 윤○빈, 이○민, 이○린, 이○서, 전○지
 정○영, 정○건, 정○지, 최○나, 최○정

교내 학술상 우수 수상자

권○주, 김○환, 노○중, 류○연, 맹○진, 박○영, 박○연, 배○규, 변○섭, 성○현, 송○나, 신○섭, 이○현, 이○규, 이○재, 이○제, 정○진
 정○교, 정○은, 주○연, 차○빈, 최○휘, 최○훈

약학대학 2024학년도 입학식 개최

폭넓은 네트워크의 우리 약학대학 입학식을 축하



지난 2024년 2월 29일 약학대학 102관 314호에서 약학대학 24학번의 입학식이 진행되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 72번째 새로운 입학생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었다.

추운 날씨에도 신입생의 입학식을 축하하기 위해 신입생의 가족 및 지인들이 동행했으며, 우리 약학대학의 교수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나동희 학부장의 진행으로 시작했다. 1부에서 ▲개식선언 ▲연혁보고 ▲학부 및 교수님 소개 ▲환영사 ▲축사 ▲신입생 선서 ▲장학생 표창 ▲교가 제창 및 폐식 선언이, 2부에서는 ▲학사 가이드 안내 ▲약대 홍보대사 소개가, 3부에서는 ▲폭력 예방 교육 ▲연구실 안전 교육이 진행됐다.

나동희 학부장은 우리 학교의 연혁과 최근에 진행된 환경개선 사업을 소개하고, 약학대학 전임교수 37인을 한 분씩 소개했다.





황광우 약학대학 학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약학대학의 네트워크는 어마어마하다. 선배들의 후배 사랑은 아주 심할 정도이다. 여기 102관 역시 동문들이 발전 기금을 모아 지어진 건물이다”며 중앙대 약학대학만의 동문회 문화를 소개하고,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나오는 야랑자대(夜郎自大)를 언급하며 자기 발견, 자기 표현을 위한 Serendipity를 단련하라고 조언했다. 나아가 “이런 우리 약학대학의 입학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가족 및 지인 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참석자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신입생 선서에서는 조영환 학생 및 신입생 일동이 선서문을 낭독했으며, 수능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조영환 학생이 장학증서를 수여받았다.

2부에서는 박재성 약학대학 40대 학생회장이 학생회를, 최재은 동아리 연합 부회장이 약학대학 동아리를 소개했다. 이어서 작년에 출범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홍보대사 파람 10인이 단상에 올라와서 홍보대사의 활동을 소개했다.

3부에서 폭력예방 교육과 연구실 안전 교육을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학생 대표 조영환 신입생은 “수준 높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 입학하여 매우 기쁘다. 더 개선된 강의실에서 좋은 학우들과 보내는 학교생활이 기대된다.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총회 및 약대 개교 70주년 행사 성료 동문 체육대회 및 골프대회 준비에 만전



지난 2024년 4월 27일 삼성호텔에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2024 회계년도 초도이사회가 열렸다.

1회부터 62회 졸업 동문들까지 약 1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수 동문회장의 개최 선언으로 행사는 시작됐다.

이날 초도이사회를 축하하기 위해 많은 동문들이 참석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 서국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조찬휘 前 대한약사회장, 정명진 대한약사회 총회부의장, 김현태 약학정보원장 등 약사회 임원을 비롯하여 유정사, 장재인, 권석형 동문 등 고문단, 김창종, 손의동, 이광섭 동문 등 자문위원, 김수배, 서동철 동문 등 감사단, 김채영 여동문회장, 이경옥, 양덕숙 동문 등 여동문회 고문단 소개가 있었다.

중앙대 약대 황광우 학장과 최영욱 명예교수도 참석하여 반가움을 더했다.

내빈 소개를 마친 정상수 동문회장은 “좋은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순간마다 중앙대 약대 동문의 힘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1월 26일 총회와 약대 개교 70주년 행사를 같이 성대하게 치렀고 지난해에는 산업계 약사 동문들이 모임도 있었다. 앞으로 예정된 6월 2일 동문 체육대회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역대 동문회장님들을 비롯해 여러 교수님들과 자문위원분들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대한약사회에서 중책을 맡고 계신 동문분들도 많이 계신데 대한약사회를 이렇게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우리 동문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황광우 약학대학 학장은 “해를 계획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와서 매우 기쁘다. 지난 1월에 동문회의 큰 도움을 받아 중대 약대 70주년 행사를 잘 치렀고, 약대 102관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약학 실습실과 강의실들이 초현대화로 많이 바뀌었다. 중앙대 약대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많이 불어 넣어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며 동문 선배님들의 후배사랑을 잘 알리겠다.”고 치하했다.

박영달 경기도 약사회장은 “초도이사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많은 동문분들을 뵈게 되어 영광이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으며, 공공 심야약국 사업과 다제약물관리 및 방문 약료사업 홍보에 경기도 약사회가 많은 힘을 쓰는 중임을 언급했다.

이후 본 초도이사회에서는 2024년 1월 26~4월 27일까지의 회무보고가 진행됐으며, 이어진 안건으로는 ‘2024회계년도 사업계획(안)’이 있었다. 본 안건에서는 각 지역 동문회 활성화, 선후배간 유대강화, 소통 증진 등이 강조됐다.

이외에도 ▼2024회계년도 일반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 ▼2024 회계년도 특별회계(장학기금&발전기금)예산(안), ▼제 52회 모교의 날 기념 체육대회(6월 2일) 및 골프대회(9월 29일) 준비의 건이 논의됐으며, 김정수 차기 동문회장의 소개를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산업계의 중앙대 약대 동문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다.

김 준 하(62회)
청년약사위원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한기가 가시며 포근함이 감돌던 날 강남의 와인바 '어게인'에 점차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금요일이 주는 즐거움과는 또 다른 설렘을 안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갓 대학생 티를 벗은 사회초년생부터 연배가 제법 있어 보이시는 노신사까지, 넓어 보였던 와인바는 순식간에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이 날은 산업계에 종사하는 중앙대 약대 동문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제약업계의 동문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지만, 이번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바로 학번, 업계, 직무, 직종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중앙대 약대 동문, 산업계 종사자'면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교류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국내/외국계 제약회사뿐 아니라 바이오텍, 스타트업, IT,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CRO, C(D)MO, 원료사, 컨설팅회사, VC, 증권사까지 사실상 약사가 진출할 수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 우리 동문의 위용을 다시금 상기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처음 자리를 준비하며 다소 고민거리였던 ‘어색한 분위기’는 애당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안부와 근황을 물으며 정겹게 인사를 주고받았고, 모르는 사이라도 한잔의 와인과 동문이라는 명분이 주는 편안함에 서로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며 사람간 관계에 대해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어려워하곤 했는데, 과연 동문이라는 큰 울타리가 주는 소속감은 사회에서 큰 힘이 될 수밖에 없구나를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위로는 현 약대 동문회장이시면서 (주)파마리서치 회장으로 계시는 76학번 정상수 동문부터, 2024년 2월 졸업하여 이제 막 한독에 입사한 18학번 추예은 동문과, 행사 준비를 위해 달려와준 약대 홍보대사 ‘파람’의 학부생 후배들까지 어우러질 수 있던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서로간 인사가 끝난 후, 제약업계의 큰 몫을 담당하고 계신 정상수 동문과 한국 약사의 대표이신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님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님과 최두주 대한약사회 사무총장님의 축사를 들으며 자랑스러운 우리 동문들의 면면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83학번 문희석 동문(현 한국다케다제약 대표이사)의 커리어 스피치와 성금을 지원해주신 동문들에 대한 감사인사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교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크게 특별할 것이 있었냐고 한다면 그런 것은 따로 없었지만, 각기 다른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자연스럽게 섞여 한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자리 자체가 만들어지기 참 어려운 요즘, 우리 동문들에게 특별함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이런 뜻깊은 모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큰 도움 주신 정상수 동문회장님, 96학번 손형운 동문, 97학번 고기현 동문, 09학번 서해준 동문, 15학번 고안나 동문, 17학번 김경린 동문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이러한 중양대 약대의 위상을 이어주시는 수많은 동문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제52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및
동문 만남의 날 행사

체육대회, 소통과 단합을 통한 삶의 작은 위안



2024년 6월 2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52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및 동문 만남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해 약학대학 개교 70주년을 기념하는 체육대회가 장대비 속에서도 성황리에 개최된 기억이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동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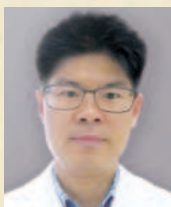
올해는 무엇보다 운동장 사정으로 6월로 행사를 당기는 어려움이 제일 컸습니다. 원래는 모교 개교기념일이 속한 10월 개최가 전통이지만, 대규모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운동장을 제때 수배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 올해도 어려운 논의 과정을 통해 양보를 받아낸 것이 6월로, 전통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동문들의 지적을 고스란히 집행부가 감내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탕에는 체육대회를 통해 동문 선후배들의 소통과 단합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작은 위안이 되고도 남음이 있음을 경험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확대, 삶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음은 부수적인 보너스이기도 했지요. 학생들과 모교 교수님들, 그리고 졸업생 선후배님들의 소통과 연대는 그 어떤 것에도 비견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더 이상 화창할 수 없는 지난 6월 2일 일요일, 다시 전국 각지에서 삼삼오오 시간을 내어 달려와 주신 동문들의 활기찬 모습을 배경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함삼균(24회) 수석부회장의 개회선언을 필두로 정상수(24회) 동문회장의 내빈 소개 및 환영의 말씀에 이어 신현국 중앙대학교 총동창회장과 황광우(35회) 약대 학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방근철(39회)
체육위원장



약대 캠퍼스 커플인 강민규(66회), 김세민(63회) 부부가 선수대표 선서를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전남 순천에서 약국을 개업하고 있는 이 부부는 체육대회 대표선서를 위해 하루 전날 올라와서 준비를 하는 열의를 보여 참석한 동문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운동경기는 예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람의 동문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살려 족구, 바둑, 테니스, 윷놀이, 발씨름, 팔씨름 등 다양한 종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자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와중에 적당한 승부욕과 가벼운 실랑이가 교차하면서 선후배 간의 화합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최근 들어 먹거리가 발길을 끄는 강력한 요인으로 인정받고 있는바 올해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풍성하게 준비된 특제 바베큐와 다양한 한식 뷔페로 참석자들의 입맛을 책임져 주며 큰 만족감을 선사했습니다.

사실 점심이 아니라 개회선언 이후부터 경기는 후배들에게 맡기고 동기간이거나 선후배들의 교류에 더욱 진심인 풍경이 오고 가는 막걸리잔 만큼이나 정겨운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음도 큰 즐거움 중의 하나입니다. 왁자지껄한 대화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음에 이번 체육대회도 성공적임에 틀림없습니다.





체육대회 중간에 손의동(22회) 명예교수님과 다른 몇몇 동문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즉석에서 오래달리기 종목을 추가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운동장 바깥쪽의 트랙을 따라 몇 바퀴고 이어 달리는 과정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동문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음은 화합과 단결이라는 체육대회의 취지를 확인할 수 있는 멋진 광경이었습니다. 집행부의 현장에서의 운용의 유연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기도 했지요.

한바탕 제대로 된 점심 식사의 향연을 펼친 후 새롭게 제기차기에 이어 최근 가장 핫한 종목으로 관심이 급증한 생맥주 빨리마시기, 그리고 참석한 모든 동문들이 청백팀으로 나눠 줄다리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중간중간 이벤트 게임으로 미니골프, 투호놀이, 신발던지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져 지루할 틈이라고는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예의 종합우승은 지난해에 이어 34회 동기회가 차지했습니다. 강력한 동기애를 바탕으로 일사분란하게 열성적으로 참여한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준우승은 38회 동기회, 3위는 39회 동기회가 차지하였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최다참가 동기회는 39회가, 최다참가 지부는 안산분회가 차지하여 모든 동문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활동적인 경기가 많아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경기를 통해서 혹은 오가는 막걸리잔을 통해서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무엇보다 선후배 간의 우정을 쌓는 귀중한 시간이었음에 감사드립니다.

1. 신발멀리날리기 2. 투호놀이 3. 미니골프 4. 맥주빨리마시기 5. 윷놀이 6. 팔씨름 7. 족구 8. 줄다리기



그 와중에도 옥의 티,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설 때마다 최우선 순위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젊은 후배들의 참석이 기대한만큼 활발하지 못해 더욱 다양한 에너지를 느끼지 못한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동문회가 존속하는 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자연스럽게 후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이어진다면 그 결과는 더욱 단단한 유대감으로 돌아올 것임을 믿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정말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대회에서는 더 많은 동문들이 함께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 약학이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동문들의 소중한 인연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체육대회가 끝난 뒤 약학대학 102관으로 이동하여 1층 도너스월과 새롭게 단장된 첨단 강의실 제막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목별 수상내역

- 종합우승 : 1등 34회, 2등 38회, 3등 39회
- 바둑 : 1등 김상래(39회), 2등 김경완(28회), 3등 이현희(22회)
- 윗놀이 : 1등 38회, 2등 41회
- 테니스 : 1등 65회, 2등 37회, 3등 34회
- 제기차기 : 1등 34회, 2등 36회, 3등 38회
- 족구 : 1등 34회, 2등 안산, 3등 39회
- 생맥주 빨리마시기 : 1등 34회, 2등 38회, 3등 41회
- 팔씨름 : 1등 36회, 2등 39회, 3등 34회
- 발씨름 : 1등 34회, 2등 41회, 3등 재학생팀



이 해 룡(28회)
동기회장



지나온 이야기 들으며 서로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기쁨

28회 동기회 졸업 40주년을 맞아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을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로 구별한다면 우리는 이제 장년기의 끝자락에 있을 것이다. 인구에 회자되던 ‘인생은 유수와 같다’는 말이 피부로 와닿는 요즈음이다.

1980년 입학 당시 민주화의 봄이라 하여 각종 시위에 휴교령으로 신입생으로서의 생활은 가을학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쓴 살같이 흘렀고, 그 와중에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환갑은 코로나라는 역사적 팬데믹 사태로 인해 흐지부지 지나가 버렸다.

그러던 중 동문회에서 전통적으로 10월에 개최되던 체육대회 및 홈커밍데이를 6월 초로 당겨서 진행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고, 우리의 졸업 40주년 행사 시계도 태엽을 빨리 돌리기로 했다.

불과 10년 전에 졸업 30주년 행사를 준비하며 동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서울의 준비모임은 물론이고 지방 곳곳에 산재해 있던 동기들을 찾아다니던 열정적인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게 벌써 10년 전이라니 세월의 빠름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동기들의 열정으로 중앙대학교 창립 이래 한 대학 졸업 동기회가 학교에 낸 장학금 1억 4백5십만 원은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지금도 톡톡이 소환되고 있는 중이다. 지금에 와서도 우리 동기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전혀 부끄러울 일 없는 우리의 자존심이요 모교 사랑의 결정체임을 자부한다.



잠깐 사이에 10년이 흘러 40주년 행사가 다가왔고, 팬데믹 사태 이후 연락조차 뜸했던 동기들에게 부랴부랴 연락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고맙게도 우리 동기들 마음속은 여전히 뜨거움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40주년 행사 당일 준비과정의 뜨거웠던 성원만큼 많은 동기들이 참석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우리를 만만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 오랜만에 회포를 풀 기대를 키웠지만, 생각보다는 적었던 동기들의 참여가 옥의 티였다.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의 몫이다. 동문회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 장학기금을 전달한 기쁨이 훨씬 더 큰 의미로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와중에도 평소 자주 얼굴 보이지 않던 동기들의 지나온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기쁨이 무엇보다 컸다.

우리 나이도 이제 60대를 넘어선 지 한참,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던 건강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되었음을 절감한다. 이런 일상 속에서 때로 동기들 만나 허물없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무엇이 아쉬우랴.

초유의 더위 속에서 이 한여름 잘 넘기고 가을이 가기 전에 1박 2일 정도의 모임을 갖고자 하는 바람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물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동기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끝으로 동기들 앞에 우리 80학번 모임에 든든한 참고지기로서 우리들의 자산을 잘 지켜주고 있는 이영주 동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싶다. 이런 몇몇 동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믿는다.

이제부터 시작될 우리 80학번 동기들의 앞날이 더욱더 뜻있고 건강하게 맞이했으면 좋겠다. 모두 건강하저!

중앙대 약대로 맺어진 우리의 인연
영원히 함께하기를 약속해 분다
자랑스러운 중앙대 약대 80학번 동기들에게

이 강 국(38회)
동기회장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 더 설레는 우리 모습

38회 동기회 졸업 30주년 행사를 마치고...



장마가 시작되는 2024년 6월 마지막 주 일요일. 1994년 2월 졸업 이후 누군가는 약국에서, 누군가는 회사에서 혹은 공직약사로 국민보건과 건강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바쁜 날들을 보내다가 30년, 약 11,000일 만에 35명의 친구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설렘과 반가움으로 웃고 떠들고 때론 공감해 주며 수다 떠는 모습들이 예전 학창시절 강의 중간 쉬는 시간의 기분 좋은 소란함이 연상 되더군요.

가까이 살거나 근무지가 가까워 자주 보던 친구들 외에도 간간이 연락만 하던 멀리 있는 친구들까지 시간을 내어 와주니 무슨 그리 할 말들이 많던지. 고단함이 살짝 깃들었지만 나름 보람찬 약국 경영과 햇병아리 막내 사원에서 어엿한 관리자가 되어 있는 회사 친구들 이야기, 획기적인 신약 개발에 정열을 바치고 있는 연구소 친구들의 이야기는 당연하게도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에 더해 가끔 온 가슴을 헤집어 놓는 미운(?) 중2병의 자식들이 있는 친구들에게 '그땐 다 그래'라는 위로의 이야기와 애들 입시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친구들, 이제는 한시름 놓은 친구들, 동기회 최초로 딸을 시집 보낸 친구의 이야기까지 대화소설과 같은 분위기를 물씬 풍겼지요. 30년의 시간은 그야말로 우리의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발효의 시간이었다고나 할까요.

시끌벅적한 잔치집 분위기의 1부 행사를 마치고 더 소란스럽고 더 즐거운 '응답하라 1990' 2부 행사를 위해 30년 전 그때 그 분위기로 학교 앞 호프집에 다시 모였습니



다. 파릇파릇 통통 튀던 약대 진생라딕스가 이제는 중후한 OB 할밴(할렐루야밴드)이 되어 그때 그 노래들을 선물 해줬고, 구수한 입담의 친구는 커피 상품권을 무기로 마지막까지 시원한 웃음의 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 분위기에 취했던 마음을 추스르고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래며 10년 후 40주년 행사에 모두 다시 만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만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이 행사가 내 주변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다짐으로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동문회에서 추진하는 장학금과 발전기금 모금에 동참하기로 하고, 30주년 행사 전후로 약 5주 동안 기부금을 모금하여 총 1,560만원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모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친구들의 십시일반 참여로 이뤄진 것이라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기부금이 38회의 이름으로 우리 중앙대 약대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초대장을 썼던 친구의 말처럼 이날의 행사가 38동기들 모두에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 더 설레는 우리 모습을 기념했던 자리'가 되었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친구들아~~~ 10년 뒤에 또 보자!



전 세계 비만약 열풍의 중심, 위고비

편집위원회

비만약의 게임체인저 등장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 옛날 비만이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시기가 있었지만,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식량공급이 원활해 지면서 체중증가와 그에 따른 의료적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지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오늘날 비만은 제2형 당뇨병 등 각종 대사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하지정맥류, 수면무호흡증, 골관절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울증이나 자존감 저하 등 정신과적 이상 증상과도 연관이 있다.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는 1997년 '비만에 대한 WHO 자문 보고서'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정의하기에 이르렀다. 비만을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할 하나의 독립된 질병으로 다루게 된 것이다.



비만약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펜터민 등 기존의 정신과용약 투여시 나타나는 식욕억제의 부작용을 이용한 약물이 주류를 이루었고,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이런저런 부작용으로 사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나타났다. Wegovy라는 약이 그것이다.

다른 산업에까지 파급력 미치는 비만약의 효과

주 1회 접종으로 1년 후 최대 17%의 체중감량 효과를 내세우며 파죽지세로 전 세계 비만약 시장을 점령해 나가고 있는 Wegovy®(semaglutide)의 열풍이 뜨겁다. 체중감소 효과가 워낙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시장에서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는 상황이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지만, 그로 인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벌써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비만치료제로 엇갈리는 업계 희비

호재	악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 브랜드 · 의류 소매업 · 육류 · 고단백 식품 기업 · 비만 치료제 제조시설 설계 건설업 · 항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자 · 도넛 · 콜라 등 일부 식품 제조사들 · 외식 업계 · 식단 관리 중심의 다이어트 업체 · 담배 · 술 · 게임 · 도박업계 · 비만 관련 수술 기기 제조사

자료: CNBC-WP 등 외신 종합

쉽게 말해 살이 확 빠지면서 나타나는 처진 살 제거를 위해 성형외과 수술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치수를 줄인 옷을 사느라 패션, 의류업계가 또 다른 특수를 누리고 있다. 또한 포만감을 느끼게 해 식욕을 억제하는 특성상 식품 업계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근손실 예방을 위한 육류와 고단백 식품의 수요는 증가), 다이어트 업계의 비상등이 켜졌고, 외식업계의 타격에 이어 담배 · 술 · 게임 · 도박 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승객의 체중감소에 비례하여 항공사의 유류 소모가 줄어들면서 연료비 절감효과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만약 semaglutide

호사자들의 관심 1순위는 단연 2012년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semaglutide이다. Semaglutide가 속한 계열은 원래 제2형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경구 혈당강하제로 개발되었지만, 임상시험 과정에서 식욕억제로 인해 살이 빠진다는 부작용에 착안하여 장기적인 체중 관리에 사용되는 비만약으로 개발된 것이다(2017년 미국 사용 승인).

Semaglutide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의 약으로 피하주사 혹은 경구로 투여할 수 있으며, 당뇨병 치료제로는 오젠평(Ozempic), 체중감소제로는 위고비(Wegovy)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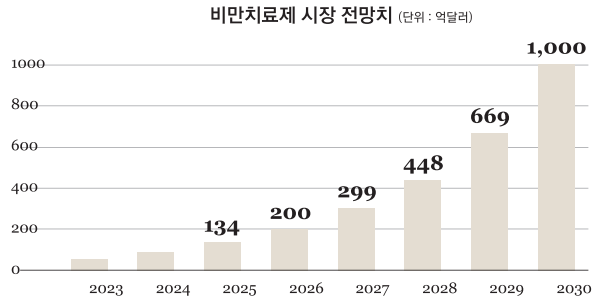
Semaglutide고용량 제제는 비만 (BMI ≥ 30) 성인 또는 과체중(BMI ≥ 27) 환자의 장기적인 체중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사용된다. 경구제는 3mg, 7mg, 14mg 세 가지 용량으로, 피하주사는 0.25mg, 0.5mg, 1mg, 2mg 4가지 용량으로 출시되고 있다.

비만약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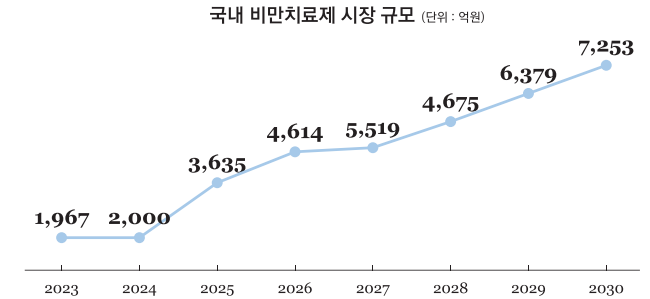
고령화 시대에 모든 치료제의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 5,000만 명, 심혈관질환자 5억 명을 뛰어넘는 10억 명의 초거대 시장이 바로 비만약의 무대다. 비만약 시장이 급성장 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배경이다. 지난해 60억 달러(약 7조원) 규모였던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은 2030년 1,000억 달러(약 131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기업들 역시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여 신약 개발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과체중 인구 비율은 낮지만 미용 목적의 체중감량 수요가 많은 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8년 960억원 수준이었던 국내 비만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30년 7,253억원으로 7배 이상 커질 전망이다.

세계 및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 전망치



자료: 블룸버그



자료: 미래에셋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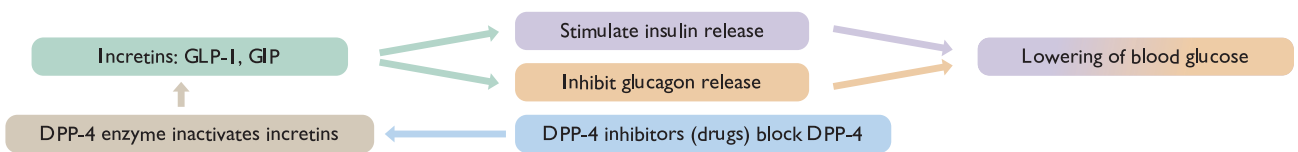
GLP-1 계열의 개요

GLP-1은 30~3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타이드 호르몬으로, 소화관으로 들어온 탄수화물을 인식하여 소화관 점막상피로부터 분비되어 췌장 랑게르한스섬 β-세포에 작용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킴으로써 혈당 강하작용을 나타낸다.

체내에서 만들어진 GLP-1은 dipeptidyl peptidase-4(DPP-4)라는 효소에 의해 신속하게 분해되고 신배설이 이루어져 반감기가 약 2분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GLP-1의 단지 10~15%만이 전신순환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임상에서의 단점을 보완해서 GLP-1의 작용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GLP-1 수용체 효능약 및 DPP-4 억제제가 개발되었다. Insulin이나 sulphonylurea 같은 기존의 치료제와 달리, GLP-1을 기반으로 한 치료는 저혈당의 위험성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체중감량이라는 기대밖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된 것이다.

GLP-1 계열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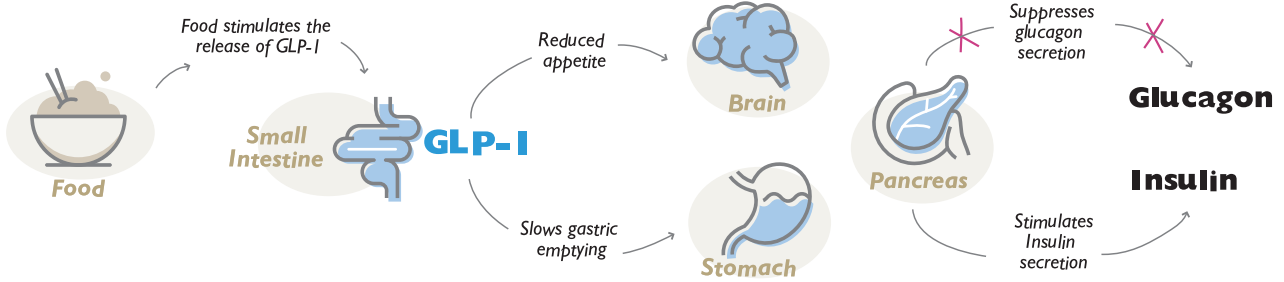
Semaglutide의 작용기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과정을 거쳐 장에서 흡수되어 일시적으로 혈당이 높아지는데,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인크레틴(GLP-1, GIP)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장에서 분비된 인크레틴은 췌장의 GLP-1 수용체와 결합하여 인슐린의 분비량을 늘리고 글루카곤의 분비량은 줄여서 혈당 조절에 나선다.

GLP-1 유사 물질은 이 인크레틴의 기능과 비슷하게 작용하는 물질들로, 이미 1980년대부터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물질이었다.

GLP-1의 작용

GLP-1 RAs



Semaglutide는 글루카곤유사 펩타이드-1(glucagon-like peptide-1; GLP-1) 수용체 작용제이다. 인크레틴의 일종인 GLP-1의 작용을 모방하여 혈당치를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 분해와 새로운 포도당의 합성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의 생성을 억제한다. 또한 소화기관의 운동을 억제하여 공복감을 줄여주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식욕을 떨어뜨리고 위장의 소화 속도를 늦추어 음식 섭취를 줄이는 작용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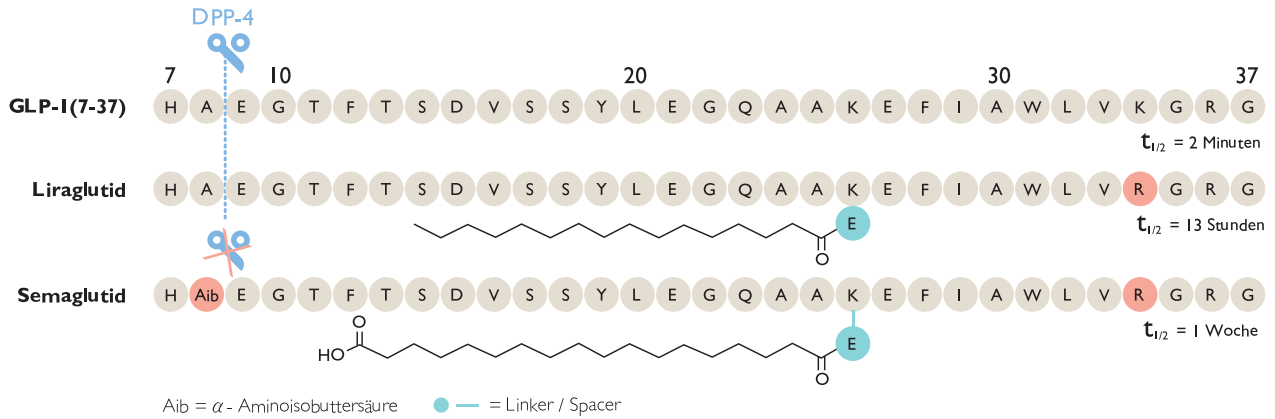
화학구조에 따른 약리학적 특성

Semaglutide는 화학적으로 인간 GLP-1과 유사하다. GLP-1 구조에서 처음 6개의 아미노산이 제거되고, GLP 2번 위치의 alanine이 2-aminoisobutyric acid로, 28번 위치의 lysine이 arginine으로 치환되었다.

여기서 alanine으로의 치환은 dipeptidyl peptidase-4에 의한 화학적 분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semaglutide 20번 위치에 있는 lysine에는 긴 사슬이 부착되어 있고 그 끝에는 17개의 탄소 사슬과 carboxyl기가 존재하는데, 이는 혈중 알부민에 대한 세마글루타이드의 결합을 증가시켜 혈액순환 중에 더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게 한다. 반감기가 길어져 주 1회 투여가 가능한 배경이 된다.

Semaglutide의 혈중 반감기는 약 7일(165~184시간)이다. 기존의 비만약 liraglutide는 반감기가 13시간으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맞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면, Semaglutide는 반감기가 170시간으로 길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장점이 있다.

GLP-1과 비교한 semaglutide 및 liraglutide 구조



부작용

가능한 부작용으로는 구역질, 설사, 구토, 변비, 복통, 두통, 피로, 소화 불량 /속쓰림, 현기증, 복부 팽만, 트림,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저혈당, 방귀, 장염, 위식도 역류질환(GERD) 등의 증상이 있으며, 또한 췌장염, 위마비, 장폐색을 유발할 수도 있다.

투여 중단시 심한 요요현상

위고비의 체중감소 효과는 뚜렷하나, 약을 끊으면 급격히 살이 찌는 '요요현상'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회사들에게는 가히 황금의 보고, 그러나 일반인들로서는 먹으면 빠지고 안먹으면 도로 찌는 현실을 직시하여 애시당초 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운동할 결심부터 하고 볼 일이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간헐적 단식과 함께 이것 먹고 살 뺐다고 자랑하는 이면에는 월 1300~1600달러(한화 약 180만~200만원)의 약소리 나는 가격이 숨겨져 있으며, 살 뺐 다음 다시 처진 살 제거를 위한 거의 보험적용이 안되는 성형수술에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전신 수술의 경우 8만 달러, 약 1억1000만원)는 이면의 그림자도 알아야 한다.

자본주의의 관념에 충실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약일지도 모른다.

강민규(66회)



키다리 선배님이 전해주시는 4년간 전액 장학금



익명의 선배님께 받은 사랑 후배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6회 졸업생 강민규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동문 선배님들께서는 무탈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졸업 후 지역약국에서 근무를 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증상에 맞춰서 약을 주고, 그분들이 다음에 와서 덕분에 많이 괜찮아졌다고 말씀해주실 때 뿌듯함을 느끼고 약사가 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동문회의 연락을 받고서 4년이라는 시간이 참 쓴살같이 지나갔음을 느끼며 지난 대학생활을 다시금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자 마음먹었던 저는 생명과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약리학교실에 진학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암 치료제 개발에 대한 공부와 연구를 했지만, 점차 지역사회의 일선에서 환자들과 보다 직접적으로 마주하며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당시 중앙대 약학대학 재학생이었던 아내는 저에게 PEET 응시를 추천했고, 남들보다 나이가 많은데다 준비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오랜 시간동안 고민했지만 내 꿈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을 자퇴하고 PEET에 뛰어들어든 만큼 돌아갈 곳은 없었으며 간절했기에, 중앙대 약학대학에 합격한 후 인생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크게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중앙대 약학대학에 입학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지만, 그 끝에는 그간의 대학 생활로 쌓여 있던 학자금 대출금과 새로운 4년을 위한 등록금 문제가 여전히 막막한 현실의 문제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앙대 약학대학은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2020년도에는 익명의 선배님께서 한 학생에게 4년간 전액 장학금과 더불어 소정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는 해당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매 학기 등록금과 소정의 생활비까지 받으며 대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장학생에 선정됨으로 인해 장학금 그 이상으로 얻게 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시험기간에는 아무런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었고 축제기간에는 여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었으며, 평소에는 유기반에 소속되어 여러 행사를 준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합창동아리 아코러스 칼라무스의 반장이 되어 함께 노래하고 화음을 맞춰갈 때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모두가 합심하여 코로나로 인해 몇 년간 멈춰졌던 정기발표회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구동아리 FCP의 일원으로서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할 때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두가 열심히 연습하여 교내 리베로배 축구대회 8강, 전국 약대생 축제 체육대회 준우승이라는 최고성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선후배, 동기들과 관계를 맺으며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여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중앙동 장학금 수혜자로서 63회 졸업생인 아내와 함께 동문회 체육대회에 초대받아 선서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동문 선배님들을 뵙고 함께 땀 흘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험 중 저에게 소중한 것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까마득히 먼 후배를 사랑하는 익명의 선배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소중한 추억들을 경험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글로는 형용할 수 없는 한없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 감사함을 마음 속에 새기고, 소중한 경험들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의 삶을 현명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언젠가, 사랑하는 후배님께 제가 받았던 사랑을 물려줄 생각입니다.

익명의 장학금을 회사해 주신 선배님,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선후배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 수 호(68회)
기장



약학도의 길을 걷는 중앙인, 파람(Pharam[□])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선배님들. 저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홍보대사 '파람'의 기장을 맡고 있는 조수만 학생입니다. 동문회지를 통해 선배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70주년을 맞이하여 창설된 홍보대사 파람은 'pharmacy + 사람'이라는 뜻으로 약학도의 길을 걷는 중앙인을 의미합니다. 파람은 홍보위원장이 이지윤 교수님과 홍보위원회 교수님들 및 재학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학생은 인터뷰 및 취재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대외협력팀과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교의 대내외 소식을 재학생, 동문, 예비중앙인들에게 알리는 소통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의 의전 활동 및 입학시험 지원, 캠퍼스 투어 등 다양한 활동 또한 진행함으로써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널리 홍보하는 데에 목적을 둡니다.



파람의 활동

파람을 통해 동아리, 실험반, 학생회 등 재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교내 행사, 동문회 행사의 소식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홈페이지에서, 영상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유튜브(QR코드 참조)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기사와 영상 모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을 통해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으니 구독은 필수입니다! 파람의 대표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람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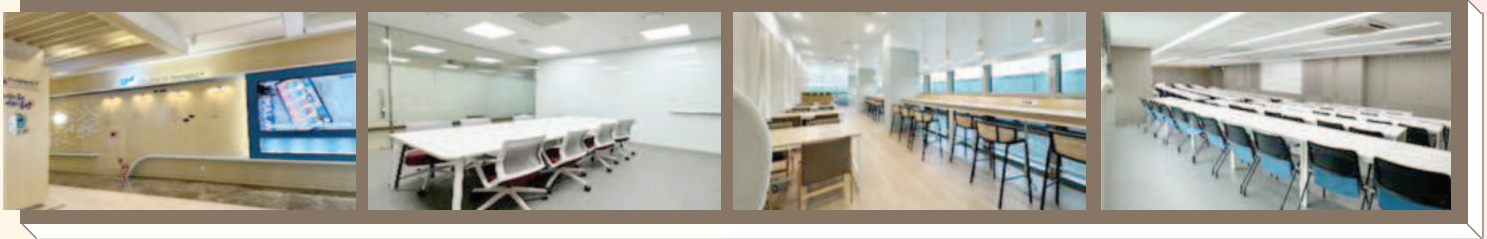
-파람의 대표적 활동인 '파람이 간다'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빛낸 선배님들을 직접 찾아뵈어 인터뷰함으로써 재학생들에게 애교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선배님을 찾아뵈는 그날까지 열심히 정진하는 파람이 되겠습니다!



2) 교내시설 변화 소개

- 약학대학 개교 70주년을 맞아 진행되었던 약학대학 환경개선 사업이 동문 선배님의 사랑에 힘입어 마무리되었습니다.
- 대표적으로 1층 로비에 '약학대학 역사관 및 도너스월'로, 2층에 '박종혁 팀플룸'으로, 3층에 약학도서관 내 '진정주 스터디카페'로, 4층에 '리쥬란 강의실'로 개선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3) 학교행사 취재

- MOU 체결과 발전기금 전달식, 교수님 퇴임식과 같은 본교의 크고 작은 행사를 취재합니다.



4) 재학생 활동 소개

- 자랑스런 재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취재하고 영상을 제작합니다.



5) 70주년 행사

- 70주년 영상을 제작하며 동문 선배님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켰고, 2~4층에 이미지월을 제작했습니다.



6) 동문회 행사

- 체육대회, 초도이사회, 제약산업회 등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취재 및 영상을 제작합니다.



7) 입시관련 콘텐츠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진학을 바라는 예비중앙인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글을 마치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은 최다 약사 배출학교로, 본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선배님들이 여러 분야에서 중사하고 계십니다. 저희 파람은 이러한 동문 선배님들을 소개하여 재학생 및 예비 중앙인들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홍보대사 파람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눈팔지 말어

-중앙대 약대 8회 졸업 60주년을 생각하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첫 수업
유기제약 강의 시간이다
대학노트는
빈 장이 몇 장 남지 않았는데
걱정이 들기 시작한다

아랫배가 무거워진다
고윤식 교수님께서
수업 내내 흐트러짐이 없는 목소리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주지 않고
내리 세 시간
수업을 마치시고 나서야 칠판에
As you like
you may take your lunch
라고 써놓고 나가신다

-한눈팔지 말고
실습실과 강의실만 오르내려야 해
등곳길에 들려주던 고향 선배님의 말을
되씹어 삼키면서 허기진 배를 채웠다



백만섭(8회)

아직도
그 말을 새기며 살고 있다

· 개인시집 『마음속 섬 하나』, 『바래지 않은 그림』, 『좁고 가파른 층층대』
· 공저시집 『시인&서산』

명예의 전당 도너스월(Donors Wall), 최첨단 설비의 리쥬란 강의실 제막



약학대학이 새롭게 조성한 도너스월(명예의 전당)과 리쥬란 강의실의 제막식이 2일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에서 성대히 진행됐다.

제막식 행사는 ▲개식 선언 ▲내빈 소개 ▲약학대학장 축사 ▲행정부총장 축사 ▲정상수 약대 동문회장 인사말 ▲약대 학생회장 감사 인사 ▲꽃바구니 전달 ▲1층 도너스월 제막식 ▲4층 리쥬란 강의실(401호) 명판 제막식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광우 약학대학장, 이찬규 행정부총장, 이무열 대외협력처장을 비롯해 정상수 약대 동문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등 많은 약대 동문이 참석했다. 새로운 시설 조성을 함께 축하하고, 동문 선배들의 뜻깊은 기부를

기리기 위해서다.

이번 도너스월 신설과 리쥬란 강의실 리뉴얼은 약학대학 동문 선배들의 기부에 힘입어 이뤄진 것이다. 특히 리쥬란을 개발한 ㈜파마리서치의 창업주이자 회장인 정상수 동문 회장은 이번 시설 조성을 위해 지난해 5억원을 선뜻 기부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상수 동문회장은 “학생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100명이 넘는 동문이 기부에 참여해 주셨다. 약학대학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동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 총장님과 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재성 약대 학생회장은 “중앙대 약학대학을 잊지 않고 항상 지원해 주시는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환경에서 멋진 약학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했다. 이날 제막식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도너스월은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1층 로비에 조성된 시설이다. 그간 약대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에 동참해 준 동문들을 기리고자 마련된 도너스월에는 기부자들의 면면이 하나하나 명패에 담겨 전시됐다. 약대 관계자는 “따뜻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기부에 담긴 뜻도 널리 알리고자 도너스월을 만들게 됐다”고 전했다. 도너스월 제막식 이후에는 새롭게 선을 보이는 리쥬란 강

의실의 제막식이 진행됐다.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401호에 조성된 리쥬란 강의실은 터치스크린과 함께 130여 개에 달하는 모든 좌석에 콘센트가 비치된 최첨단 강의실이다. 황광우 약대학장은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어서 동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찬규 행정부총장은 “큰 뜻을 바탕으로 항상 우리 대학과 우리나라 약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동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정주 동문 스터디카페 현판식



5월 8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102관 4층 약학도서관 앞에서 진정주 동문의 기부로 만들어진 스터디카페의 현판식이 열렸다. 진정주 동문(90학번)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뿐 아니라 중앙대학교에도 많은 기부를 통하여 후배양성에 물심양면으로 힘써왔다. 이 날의 행사에는 박상규 총장, 이무열 대외협력처장, 정상수 동문회장을 비롯하여 약학대학 교수들도 참석했다.

약대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배운 심폐소생술, 생명을 구하다 - 재학생 송기철, 고영우 학생에게 고마움 전해 -



지난 8월 1일, 중앙대학교 참슬기식당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송기철, 고영우 학생을 치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해당 자리에는 약대 황광우 학장을 비롯해 나동희, 김은영, 민혜영 교수가 참석했다.

이번 자리에서는 지난 7월 5일, 중앙대학교 참슬기 식당에서 소중한 생명을 심폐소생술을 통해 살린 송기철 학우와 고영우 학우에게 작게나마 고마움을 전달하고자 약사 푸앙이 인형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자리에서 황광우 학장은 “좋은 일을 해서 학교를 빛나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번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심폐소생술 비교과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고, 작지만 고마움을 전하고자 푸앙이 인형을 증정하게 되었다. 앞으로 더욱 멋진 약학도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송기철, 고영우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박종혁 팀플룸, 현판식으로 새출발



지난 5월 22일 수요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102관 2층 박종혁 팀플룸 앞에서 현판식이 진행됐다. 약학대학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팀플룸 단장은 박종혁 동문의 기부로 이뤄졌다.

박종혁 변리사는 중앙대 약대에서 학, 석, 박 학위를 모두 취득하여, 현재 박종혁 특허 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로서 제약 분야 심판 소송을 맡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대 약학대학 박광용 교학부총장을 비롯하여 이무열 대외협력처장, 나동희 약학대학 학과장 그리고 박종혁 변리사 및 91학번 동문들이 참석했다.



약학대학 발전기금 현황

2023년 12월 ~ 2024년 8월

기수	성명	기부금액	기수	성명	기부금액	기수	성명	기부금액	
24회	정상수	500,000,000	22회	최광훈	5,000,000	32회	손수정	3,000,000	
1회	홍흥만	1,000,000		강희윤	1,000,000		이경우	1,000,000	
8회	조의환	50,000,000	23회	박희용	1,000,000		김익수	5,000,000	
	이백천	5,000,000		이승하	1,000,000		임형미	3,000,000	
	허근희	1,000,000		홍순욱	10,000,000		윤형중	1,000,000	
10회	류정사	3,000,000	24회	함삼균	2,000,000	33회	강기석	10,000,000	
	10회 동기회	5,000,000		이광섭	2,000,000		김정태	10,000,000	
	정영기	1,000,000		임무호	10,000,000	34회	한일권	1,000,000	
11회	김창중	1,000,000		이규삼	2,000,000	35회	35회 동기회	20,000,000	
	장순걸	6,807,629		최영욱	5,000,000	36회	임성호	3,000,000	
	하정선	1,000,000		최종정	10,000,000		김진수	1,000,000	
12회	이순우	60,000,000		변영건	5,000,000		차인혜	1,000,000	
	황순오	60,000,000		함한성	1,000,000	37회	서보연	1,000,000	
	이수웅	1,000,000		정종근	1,000,000	38회	진정주	150,000,000	
13회	최호순	5,000,000		조중래	100,000,000	39회	한은경	5,000,000	
	서국진	1,000,000		장규욱	1,000,000		박종혁	100,000,000	
14회	김동원	1,000,000		이영주	2,000,000	40회	이병두	1,000,000	
15회	정해성	2,000,000		김승재	1,000,000	41회	이은영	10,000,000	
16회	안태환	1,000,000		윤세형	1,000,000		이은경	1,000,000	
	하상권	1,000,000		양성삼	1,000,000	46회	이동훈	1,000,000	
	우상규	1,000,000	25회	최두주	1,000,000	58회	김태수	1,000,000	
	최광식	1,000,000		김광호	3,000,000		김은혜	1,000,000	
	송수영	1,000,000		27회	염승호	3,000,000	62회	김준하	1,000,000
	백승복	1,000,000		이연숙	10,000,000		김익석	2,000,000	
	권희문	1,000,000		박영달	5,000,000				
	김용환	1,000,000	28회	김희식	1,000,000				
	정동래	1,000,000		김미경	1,000,000				
	허사길	1,000,000		김채영	1,000,000				
	김광길	1,000,000		양덕숙	3,000,000				
	이은솔	1,000,000	29회	29회 동기회	1,000,000				
	이정순	1,000,000		김영자	5,000,000				
	최장순	1,000,000	30회	최병태	1,000,000				
17회	장재인	2,000,000		최병원	2,000,000				
18회	박계환	5,000,000	31회	이정희	1,000,000				
19회	이경옥	1,000,000		구상미	1,000,000				
20회	김현태	1,000,000		강미숙	3,000,000				
21회	신길득	2,000,000	32회	32회 동기회	3,000,000				
	김수배	2,000,000		김신규	1,000,000				
	김중효	2,000,000		김지현	1,000,000				
	한상윤	2,000,000		전경숙	1,000,000				
	한성희	2,000,000		이경준	3,000,000				
	한찬수	2,000,000		유완진	1,000,000				

성명	기부금액
학장 황광우	5,000,000
교수 김하형	1,000,000
교수 김훈영	1,000,000
교수 나동희	10,000,000
교수 민경훈	1,000,000
교수 민혜영	1,000,000
교수 신소영	5,000,000
교수 오경택	1,000,000
교수 오미현	2,000,000
교수 유희찬	5,000,000
교수 이동규	5,000,000
교수 이성훈	5,000,000
교수 정경혜	2,000,000
교수 조재범	5,000,000
교수 황완균	1,000,000
합 계	1,336,807,629

동문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큰 동문회를 만듭니다.
회비납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2024회계년도 회비내역 2024년 1월 ~ 2024년 8월

회장단회비		600,000원	
24회	정상수, 김태두, 박길태, 변영건, 양성삼, 윤원철 이광섭, 이규삼, 이범도, 이희상, 임무호, 장규욱 정종근, 조중래, 최영욱, 최종정, 함한성, 황규진	30회	김광식
25회	이현수, 최두주	32회	김신규, 임형미, 정선종, 김익수
26회	한갑현, 최민규	34회	이선민
27회	곽나운	35회	이경선
28회	구영삼, 이영주, 이해룡	36회	임성호
29회	이종욱	38회	김병욱
		40회	이병두
		45회	고기현

이사회비		150,000원	
5회	김채운	24회	심영철, 윤세형, 이형수
6회	안인혁, 유관열, 임완호	25회	김완기, 김희섭
7회	정재일	26회	김정수A, 김정수B, 선우일원, 손영상, 최종배
8회	박번일, 이백천, 조의환, 최영자, 허근희	27회	박수길, 오순용, 오흥설, 최충식
9회	김영빈, 이근배	28회	김유곤, 신영무, 이병천, 전금용, 최용철
10회	김명민, 심수일, 유정사, 정영기	29회	손병로, 유종운, 한일룡
11회	고승하, 김창중, 박신규, 박찬희, 이철규, 황공용	30회	김성배(김해승), 김혜수, 최병태
12회	남기탁, 노덕재, 심재웅, 염윤기, 이관하, 조택상	31회	오세정, 윤희정, 이미자
13회	구연홍, 박동규, 서국진, 안병식, 윤해선, 이상길 최창엽	32회	손수정, 유명식, 이경우, 정영복
14회	구종모, 김동원, 김윤국, 조병화	33회	김영재
15회	조찬휘	34회	한일권
16회	백승복, 송용만, 이은술, 최광식, 최창원	35회	송지숙, 양윤정, 오창현, 임중식
17회	선우영환, 신상직, 장재인, 전상훈	37회	안의성
18회	강응모, 김기명, 조중형	38회	최은영
19회	김경오, 박효식, 윤건섭, 이경욱	39회	민필기, 박성훈, 방근철, 한은경
20회	권오규, 김영식, 류화승, 문주기, 박기배, 이영희 이호선, 정찬현, 최석중	44회	이선영
21회	김수배, 김중효, 양주석, 한상윤, 한성희, 한찬수	45회	조은구
22회	강희윤, 김인선, 김홍진, 손의동, 오황영, 유대식 이현희, 최광훈, 한만영	57회	김 윤, 서해준
23회	강한구, 권석형, 김수중, 김영출, 박종화, 박희용 이계석, 이승하, 임준석, 최의한, 하충렬, 홍순욱	58회	김은혜, 김태수
		61회	정영섭
		62회	박영호

평생일반회비		500,000원	
김동완(7회), 조근행(7회), 손광자(9회), 심재창(12회), 박광자(12회), 김태성(17회), 김관식(25회) 김기형(26회), 이경준(32회), 박경록(33회), 진정주(38회), 이지윤(46회), 박창국(66회)			

일반회비		30,000원
6회	신의명, 정진석	29회 권혁자, 이강현, 이연주, 장귀연, 장우성
8회	김진우, 김형이, 박희철, 유재우, 이능자, 임진택 정영수, 정재용, 정형숙, 조수현, 조현인	30회 고은숙, 김상의, 김선겸, 문미례, 박복자, 배영숙 손은실, 이경숙, 최현희, 홍염미
9회	권태섭, 노신희, 손광자, 윤성노, 이병호, 이해자 정상모, 조병일, 최보혜, 한정희	31회 구상미, 김미경, 김향수, 류문숙, 문희석, 오대근 유두중, 이동익, 이선자, 임기상
10회	김정남, 박광일, 이원일, 전광석	32회 국승곤, 김현정, 안승희, 유완진, 이정희, 전경숙 정현삼, 채영주, 최국환
11회	구지억, 김재곤, 김철홍, 김학진, 남복석, 서세양 서정일, 송상부, 안홍신, 양계창, 이종만, 장현소 전창환, 허정범	33회 김병호, 소정우, 유정순, 윤종배, 이준복, 최수향
12회	김대건, 김일영, 김초성, 민명임, 오형철, 옥정남 이성순, 이수웅, 이순우, 이정희, 장광웅, 정재균 조병숙, 최승은, 최창묵, 황순오	34회 김영미, 김용수, 노영화, 류지숙, 박경아, 박상권 백희숙, 임혜숙, 정성아, 조형권
13회	김태종, 이우식, 최승기, 최호순, 홍성구	35회 김경실, 박소영, 손은경, 양정희
14회	김영일, 김진행, 류효성, 이강련, 전봉선, 최종택 홍성철	36회 강경애, 박종구, 양성운, 유복진, 이명숙, 정현희
15회	박인호, 송현숙, 이명숙, 이인석, 정해성, 조두섭	37회 박수경, 백수형, 서승희, 한덕희
16회	박상환, 박종애, 신규연, 윤영위, 조연심	38회 김수규, 성치순, 이강국, 이창은, 현수윤
17회	김상집, 신승백, 심상근, 양희익, 이희정, 인익진 전상훈	39회 권연정, 이용준
18회	권영철, 남애숙, 문형진, 박인환, 양만기, 여운숙 육득윤, 임태영	40회 이필상, 최성철
19회	고문찬(고재무), 남윤수	41회 신옥숙, 신유미, 이명희, 이종혁, 이호섭, 최진희
20회	민태형, 방금숙, 송열호, 이길만, 이종훈, 장영철 정동천, 정영수, 최용철, 홍철수	42회 김록원, 남은정, 민명기, 송성훈, 윤지연, 이창경 임태규, 황인영
21회	김동연, 김동학, 김진자, 송주식, 신길득, 우건상 이상준, 장창만, 한찬수	43회 김중호, 송세현, 한주희
22회	김종궁, 박미란, 오기환, 이영욱, 장상대	44회 김보영, 김수길, 양미선, 유경미, 정영자, 정의찬
23회	갈희, 김봉래, 김수현, 박영근, 박찬중, 송명숙 영, 천경호, 최경선, 최용진, 한병철	45회 권성원, 권영삼, 김지하, 박성희, 이상영, 조동환 조태원, 홍정은
24회	강창주, 신용철, 임철빈, 홍순철, 홍용기	46회 강병균, 이동훈
25회	권세형, 김선열, 김형욱, 손현우, 조석현	47회 김시우, 안지현, 한원선
26회	김봉일, 김영후, 김윤수, 김재정, 김정수A, 나종우 박주돈, 이강욱, 이기평, 정기춘, 진희역, 최옥숙 최종배	50회 김정아, 박주현, 임현균
27회	김재식, 김창식, 염승호, 전명수, 최경희	51회 김나연, 박경태, 박병언, 장진
28회	기병서, 김경완, 김형준, 변순희, 오상기, 조한균 한성호	52회 김혜연, 박인
		53회 정유경
		55회 심재선, 이선구
		60회 김수진, 김예슬
		61회 양대형, 정주호
		63회 김세민, 이현택
		64회 박세영, 박수진, 이재찬, 정무영
		65회 박기현, 송우석, 전차희, 박성현

2024-1학기 약학대학 동문회장학금 수혜자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1	본동문회(청호 손동헌)	1,000,000	제약학	강민혁
2	본동문회(김명섭)	1,000,000	약학	강지원
3	본동문회	1,000,000	약학부	김민지
4	본동문회	1,000,000	약학	김성용
5	본동문회	1,000,000	약학	김하경
6	본동문회	1,000,000	약학	김희선
7	본동문회	1,000,000	약학	문해일
8	본동문회	1,000,000	약학	방희주
9	본동문회	1,000,000	약학	변경원
10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서지은
11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양지웅
12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엄윤정
13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오동호
14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오준형
15	본동문회	1,000,000	약학부	이승재
16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이자연
17	본동문회	1,000,000	약학과	이혜윤
18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장지운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19	본동문회	1,000,000	약학부	조송희
20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조우진
21	본동문회	1,000,000	약학부	최규현
22	여동문회	1,000,000	약학부	최은비
23	안양동기회	1,000,000	약학부	최정우
24	26회 동기회	2,000,000	제약학	강진혁
25	28회 동기회	2,000,000	제약학	천승희
26	손의동 장학금	1,500,000	제약학	유지석
27	약품물리	1,000,000	약학	김현중
28	병태생리학교실	1,000,000	약학	김나희
29	병태생리학교실	1,000,000	제약학	전호진
30	약제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김민경
31	약제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이윤상
32	생약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김소연
33	생약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임원희
34	큐엘파마	1,500,000	제약학	김주현
35	큐엘파마	1,500,000	약학	전건표
합 계		38,500,000		



그렇게 전통이 쌓여
우리의 중앙이 되었다

기어 들고 힘이 많이 모였어 정신
세상에 알리게 우리 중앙대학교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것들은 결코 가볍게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열심히 노력해 얻은것이든 저절로 얻어진 것이든 주어진 축복이 너무나 귀하다.
여름 휴가를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조호바르 다녀왔다.
소중하고 값진 추억을 잔뜩 담아왔다

박희용(23회)
편집위원

그냥 노느니 뭐라도 하자는 심정으로 서너 달 제법 열심히 걷고 틈틈이 남한산성도
올랐건만 건강검진에서 과제중에 복부비만이라는 의외의 지적을 받았다.
뒹집 지고 어슬렁거린 수준이 아니라 땀 껌나 흘렸다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에 부글부글 스스로 분을 삭이지 못하던 나를 보고
지인이 동의도 구하지 않고 헬스장에 등록을 해버렸다.
나이 들면 걷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근력운동을 해야하느니 뭐라느니 하면서,
도살장 끌려가듯 마지못해 운동기구 옆을 서성인 지 서너 달. 딱 밥맛 좋아질 정도,
술 마시는데 필요한 체력유지 정도의 운동량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나 요즘 운동해' 라고 핑계대는 재미가 쏠쏠하다.

임성호(36회)
편집위원

올해가 우리 생애 있어서 가장 시원한 해로 기록될지 모른다는
기상이변의 시대임을 감안하더라도 더위도 너무 덥다.
열대야가 한 달 이상 지속된다는 데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그런 와중에도 행사는 진행되어야 하고, 운동장 사정으로 예년보다 당긴
동문 체육대회를 선후배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치르고
골프대회를 기다리고 있다.
동문들의 단합을 위한 자리라면 굵은 땀방울 흘리는 수고야 오히려
고마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더위를 이겨낸다.

 REJURAN®



피부 속 세계,
리쥬란으로 채우다

 파마리서치

광고심의필·심의번호 조함 2023-31-031(유효기간 26.08.22)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조직수복생체재료. 성인의 인면부 주름을 일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용

Hanmi

Global · R&D 선도

한미약품

도전하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모두가 쉬운 길을 택할 때,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만을 개척했던 한미약품!
인류건강을 위한
혁신신약 연구개발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Hanmi

Your NOVA LIFE partner,
We light up your NOVA LIFE

노바렉스 NOVAREX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원료를 개발, 생산하는
대한민국 1등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입니다.
첨단화된 기술력과 생산설비로 품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NOVAREX 고객사

국내외 유수의 기업에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송공장 (본사, 생명과학연구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4로 80
오창공장 충청북도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64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 2층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www.caupharma.com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0-1호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이메일 capa21@hanafos.com